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8. 7 ~ 2022. 8. 27 제269호

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기독교 대학 채플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한데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기독교 사학 협의체인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 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

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송실대학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써 종교 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송실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별도의 관련 의견서에서 “인권위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난 광주 ○○대학교 채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며, 학생이 해당 대학교를 지원하여 입학한 이번 사안에 대한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더 나아가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GNPNEWS]



Interview



윤우 장로(공군중앙교회)

강한 군대는 굳건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군선교의 역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 1951년 군종제도와 함께 70여 년에 이른다. 이 같은 군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34년간 공

군에 몸 담은 윤우 장로를 통해 들어본다. 그동안 군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은 윤 장로는 군 시절 작전계획을 짜듯, 현

재는 군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짜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3)

‘로마서’는 우리 죄악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에는 성경 속 복음의 광맥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우리가 빠졌던 그 형편없는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1장은 죄악의 반역성으로 시작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인지, 또 이것이 영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하는지, 타락한 내용이 배후 사탄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는 말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흑암의 권세, 음모,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처박힐 만큼 무서운 죄가 ‘죄 곧 나요 나 곧 죄’였던 운명에 대해 숨 쉴 틈 없이 공격하고 밝혀내줍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계속되는 가운데 모테신앙인 유대인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줍니다. 유대인과 율법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율법은 실존했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선한 것인데 이 언약이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다 무효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직접 맺은 실제적인 언약과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두 가지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적인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어 죄의 가공할 만한 능력을 근거로 존재로서의 죄를 다룹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



일러스트=김경선

력이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 는 안 된다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안 된다, 틀렸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편에서의 모든 희망은 이제 접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은 모두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보아야지. 율법을 지켜보아야지.”하고 결심해봤자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장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동아프리카,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부족에 허덕여



▲ 에티오피아의 물장수 할아버지와 나귀. 제공: WMM

여린 나귀가 셋노란 물통들을 등에 지고 있다. 도시 인프라가 열악해 수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는 물을 파는 물장수들이 많다. 에티오피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올해 동아프리카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다. 크리스천 에이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네 차례의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흉작, 가축 폐사, 물 부족, 극심한 배고픔에 직면하여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케냐의 한 미혼모

는 비가 오지 않아 물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왕복 40km를 걸어야만 한다. 에티오피아의 한 농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채소에 물을 줄 수도 없고, 이제 집에서 내다 팔 가축이나 우유도 없다.

더구나 티그라이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곡창지대가 전쟁터가 되어 식량을 구하기 더 어렵고 가격은 폭등했다. 이런 와중에 믿음의 결단은 이어지고 있다. 한 작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바짝 말

라버린 이들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기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겔 34:26~2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아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남수단 평화 여전한 ‘위기’… 분열된 정치권 회복 필요

내년 2월 선거를 앞둔 남수단이 살바 키르 대통령과 리크 마차르 부통령 사이의 분열로 군부와 정치권이 나뉜 채 여전한 ‘위기’ 상태라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WORLD)가 지난달 22일 전했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키르와 마차르의 싸움으로 내전을 겪고, 2018년 평화협정을 맺고 권력을 분점했으나 전국으로 확산된 공동체 간 폭력과 무장 민병대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사육과 악한 탐심으로 분열된 남수단 정치권에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안정된 평화를 이루어주십시오. 폭정 아래 신음하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대대에 이르는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베트남, 종교법 초안 발표… 미등록교회는 불법, 형사처벌

베트남 공산당이 지난 6월 초 2가지 종교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등록교회는 종교법에 따라 불법으로 여겨져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벌금형, 조직이나 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외국인들은 베트남 종교인들과의 활동이 제한되며, 해외의 모든 재정적 기부 보고도 의무규정이다.

선교를 막고, 교회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악법을 폐하여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생명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어떠한 시련에도 부흥이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베트남에 허락 해주십시오.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주십시오.

韓 경찰, 100일간 폭력성 범죄·강절도 사범 6만 9133명 검거

경찰이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폭력성 범죄와 강도, 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6만 913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폭력성 범죄 사범은 3만 6432명을 검거해 715명을 구속했으며, 단속 이전 같은 기간보다 검거와 구속 인원이 각각 80%, 126% 증가했다. 강·절도 사범은 3만 2701명을 검거해 1247명을 구속했다.

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진리로 모든 영혼들이 정결해지는 국가적인 거룩을 이루어주시길 구합니다. 성적, 도덕적 타락에 불감한 마음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교회가 깨어나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되는 일을 성취해주십시오. [GNPNEWS]

의료·법 전문가들, “조력존엄사법안, 안락사나 다를 바 없어… 반인륜적 법 반대”



출처: ladbible.com 캡처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자는 조력존엄사법안은 생명 경시를 가져오는 비윤리적인 법이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대표 이명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안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목숨을 끊게 한다는 위험한 안락사 법안과 다를 바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인륜적이고 생명 경시를 촉발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후라도 선의를 가장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시하는 무책임한 법안 제출은 재발돼서 안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법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자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약물 투여로 자살하는 행위를 의사조력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한번 안락사와 유사

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노인, 식물인간 상태, 불치병에 걸린 영유아들에게까지 안락사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법안이 허용될 경우, 고통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자칫 ‘죽을 권리’가 ‘죽을 의무’로 둔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안 의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은 지난 6월 15일 발의된 이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지는 않았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8월 8일 ~ 2022년 8월 27일

8월 8일 ~ 8월 13일 8.9~12(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 010-4715-3727, 8.11(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 010-7709-0691, 8.11(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 010-4828-3408, 8.12(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 010-2664-6936, 8.12(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8.12(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 010-6810-2949, 8.12(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그 외 8교회 진행중.

8월 15일 ~ 8월 20일 8.16(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 010-5417-9933, 8.16, 18~20(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8.18(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 010-4828-3408, 8.19(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8.19(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 010-6810-2949, 8.19(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8.19(0시)~20(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 010-3697-0641, 그 외 6교회 진행중.

8월 22일 ~ 8월 27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 010-4734-8567, 8.25(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 010-8308-4628, 8.25(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 010-4828-3408, 8.25(18시)~27(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 010-4661-4039, 8.26(11~13시) ▶서울 양천 / 그리스도가 전부되는 교회(박**) 010-6810-2949, 8.26(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월드 포커스 |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곡물 시장 붕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농부들은 나포된 러시아 탱크와 대포, 그리고 격추된 헬기를 분주하게 끌어다 놓고 있다. 이 새로운 일거리에 더하여 그들은 텅으로 봄 작물을 심어야 한다. 그것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새삼 일깨워준다.

무엇이 위태로운가? 2021년 우크라이나는 8000만 톤의 수확량 중 600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었다. 전 세계 수출량의 17%였다. 게다가 보리는 2위, 옥수수는 4위 그리고 해바라기유(油)는 최대 생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세계 시장의 큰 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개발도상국과 인도주의적 재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곡물 중 절반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입하기 때문이다.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화 29억 달러 상당의 밀을 아프리카로 수출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미 역대급으로 높았던 밀 가격은 30%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곡물 및 주요 식품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7억 8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수입 물량의 25%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 물량의 23%인 9200만 달러, 그리고 태국은 수입 물량의 약 17%인 1억 3100만 달러였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식량안보가 불안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특히 심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량 중 거의 75%는 밀을 포함한 곡물이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3억 700만 톤의 밀을 수입했다. 2020년에 우크라이나는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의 단일 최대 곡물 공급원이었는데, 2021년에 기록을 갈아치웠던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양국의 경우, 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곡물 수입은 2020년 대비 거의 48%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밀가루 소비는 2021년 거의 5%나 증가했다.

그와 동시에 인접 국가들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3%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국에서 식량 생산이 인구 성장과 보조를 맞춘 적은 한번도 없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식료품 인플레이션 현상에 매우 민감하다.

농장 밭으로 번지는 전투

한편 한참 수확철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키이우 북쪽에서 동부 지역으로 옮겨갔다. 우크라이나 최대 농산물 생산 지역 중 일부에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농사를 짓기에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 지역들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신체 능력이 되는 남녀들은 군대나 국민방어군에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올해 농업생산 감소를 30%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심각한 경고는 2022년 수출이 2021년의 15~20%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농부들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곡물을 세계 시장으로 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 러시아는 마리우폴(Mariupol)을 철저히 파괴하고 물리적 기반 시설을 황폐화시켰으며 아시모프 해(the Sea of Asimov)의 우크라이나 항구 중 다른 한 곳을 거의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오데사(Odessa)는 러시아가 아직 공격하지 않은 마지막 주요 항구지만, 러시아 군이 그곳을 봉쇄하고 있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곡물은 열차나 트럭으로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물류 거점들을 겨냥한다면 그조차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지 농부들은 또한 수확철 전반기에 운영 자금 충당에 필요한 용자를 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밀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년 인도네시아는 호주로부터 469만 톤의 밀을 수입했다. 2020년에는 263만 톤을 수입했다. 북반구와 남반구 양쪽에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 식량 수입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러시아가 최대 밀 수출국이며,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4위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쟁은 세계 식량 시장에 악재다. 곡물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둔화, 소득 상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빈곤을 증가 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말이다. 에너지와 주요 식량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의심할 여지없이 전쟁은 세계 식량 시장에 악재다. 곡물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식량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 세계 식량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중국의 겨울 밀 수확은 그쪽 농업장관 말대로 “역대 최악”이었다.

댐 설치로 인한 메콩강 수위 하락으로 메콩강 삼각주에 염분 침투가 증가하였고 이는 수확 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티븐 센터(Stimson Center)에 따르면, 메콩강 삼각주는 베트남 쌀 생산의 50%를, 그리고 수출은 90%를 담당했다. 2020년 베트남의 수출은 전세계 공급의 7.4%를 차지

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에 속한다.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한 경제 퇴보는 또 다른 요인이다. 미얀마의 화폐단위인 샛(kyat)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그 가치가 60% 하락하면서 달러 부족 사태가 촉발되고 농약과 비료 수입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비록 미얀마 그 자체는 여전히 식량 안보국으로 남겠지만, 예상되는 곡물 생산 감소는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얀마는 세계 7위의 쌀 수출국이다. 2020년 세계 수출의 3.2%를 차지했다. 평상시 250~300만 톤보다는 떨어지지만 2022년 수출량이 200만 톤 언저리는 되지 않겠냐는 추산이 그나마 낙관적이다.

싱가포르를 예외로 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지못해 비판해 왔으며, 중립 의사를 표방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 우크라



▲ 인도네시아(위), 말레이시아(가운데), 태국의 시장 풍경. 출처: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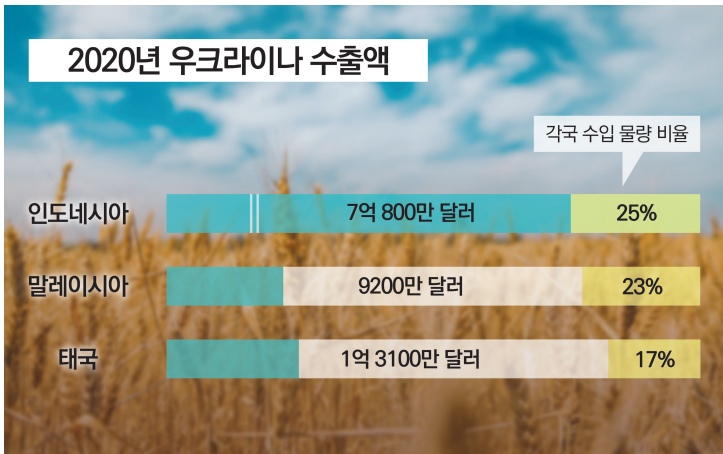
이나 군사 공격으로 야기된 경제적 고통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G-20의 올해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발리 정상 회담에 초청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포럼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며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식량 인플레이션, 그리고 잠재적인 정치 불안은 위도도(Widodo) 대통령이 초대하는 손님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GNPNEWS]

조흥국 교수(동남아 선교 뉴스레터 104호)



출처: 어반브러시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군선교에 순종해온 윤우 장로 (공군중앙교회)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80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서 34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정보작전부장, 전략기획부장, 군수사령관 등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직책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장로가 됐는데, 당시 신앙 면에서 부족한데도 군선교를 위해 장로로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장로가 됐어요. 2014년에 전역을 했는데, 국방대학교와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작년 초부터는 국군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한국군종목사단과 육·해·공군교회가 연합해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등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이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됐어요. 평생 교인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결심이었어요. 그러다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앙 좋은 아내를 따라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장로가 되면서 봉사도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면서 반딧불 같았던 신앙이 이제야 촛불 같은 신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등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동기와 선배 통해 믿음 갖게 돼

- 군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군인은 죽음 앞에서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탄이 날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부처나 천지신명을 찾고요. 그런 특수성을 가진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군목 제도를 만든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믿음은 없었지만,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임 소위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고개 숙여 기도했다고 해요. 국군중앙교회 카페 머릿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글이 있어요. ‘혈전의 얼룩짓

고 두 손 모아 기도하니 싸움터의 번민고뇌 사라져 없어지네. 믿음의 용사들이 빛은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들 빛을 향해 군세게 전진하리.’ 이것을 보면 군인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 신앙의 필요성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절감한 거군요.
“또 한가지, 군생활에서 정말 힘들 때가 비행사고가 나서 장례식을 할 때예요. 영정 앞에서 젊은 아내가 어린 자녀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때 군목이 장례예배를 집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이



▲ 국군중앙교회 카페 앞에 위치한 머릿돌. 제공: 윤우 장로

결코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믿는다. 남은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며 기도를 하면 모두가 잠잠히 슬픔을 억누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상황이 정리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전쟁에서는 얼마나 많은 죽음과 마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군목이 필요한 겁니다.”
- 맞습니다. 죽음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만큼 신앙이 꼭 필요하고, 교회와 군목이 필요하겠네요.
“군대에서 사생관(死生觀)이 정리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테니 슬프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군인이라면 누구보다 전쟁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려면 군인들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군대는 굳건한 신앙에서 길러져

- 네. 그렇군요. 장로님의 군선교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군선교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거나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군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교회는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병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역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에 입대해서 예외 없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임관 12년이 지나고 소령 때, 군에 남아야 할지 전역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좀 더 안정적이고,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진급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민간항공사로 가면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됩니다. 무시하지 못할 유혹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런 유혹이 사라졌어요. 군대에 오는 많은 병사들을 섬기고, 병사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을 못한



다는 게 아쉬웠어요.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선교를 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군대에 남기로 했습니다.”
- 군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확증하신 거군요. 군선교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군대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민간인 옷을 벗고, 머리카락을 깎둑 잘라요. 자기가 세상에서 자부심으로 여기던 것들이 아



▲ 군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제공: 윤우 장로

무 소용 없게 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점호시간에 너희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보라고 하면 효자도 불효자도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최고조가 되는 시점에 종교행사를 하게 됩니다. 모처럼 맞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또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생일대의 선교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군대에서는 간단히 말씀 전하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군선교가 가장 활발할 때가 1999년인데, 연간 22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안 되는데, 22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나 지금은 군선교가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은 세례받는 인원이 2만 명대로 줄었어요. 예배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군대에서 믿지 않을 권리도 인정받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고는 세례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코로나에 군선교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예배가 제한을 받고 군교회를 섬기는 민간 성직자들이 부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군교회에 출석하던 군인 가족들까지도 번거로운 출입절차를 피해서 민간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해지기도 했죠. 또 군 생활 자체가 예전보다 자유롭고 개인 시간을 보

장해주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교회가 줄 수 있었던 메리트가 적어진 측면도 있어요.”
- 네. 이제는 외적인 전략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자발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또 군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군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병사들에게 연락해서 신앙생활을 돕고, 위로와 안부를 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군인들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인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상당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죠. 젊은 세대가 전파매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잘 활용하면 대면 선교활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들 하지만, 입대하는 병사들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건 분명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곤고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들을 잘 살려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효과적인 군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가진 군인들, 개인 접촉 가능해져

- 그러면 지금 군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군교회와 군선교연합회가 지난해부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구호로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군선교의 주된 관심이 세례 주는 숫자였다면, 이제는 세례 받은 병사가 군생활하는 동안 신앙을 잘 지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역 후에 민간교회에 출석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역 이후에는 청년사역이 잘 준비된 교단별, 지역별 거점교회로 출석하도록 연결해주는 것까지로 군선교의 시각을 넓힌 거죠. 2030년이 되면 기존 신자를 포함해서 100만 명이 군대를 거쳐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표입니다.”
-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믿음의 결실을 갖게하자게 초점이군요.
“10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100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교회로 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국군장로연합회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장로들이 한국군종목사단에서 지정한 작은교회 중 한 곳씩을 담당해

● 5면에 계속

📖 기획 | 창조 이야기 (73.끝)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홍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 입증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성경은 물이 '줄어들었다.' 또는 '가라앉았다.'고 말한다(창 8:1).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라고 한다(창 8:3). 만일 지구의 한 부분이 가라앉았으면 물이 그 구멍으로 흘러가서 채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은 높은 파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8장에서 물이 '갔다'가 돌아왔다'고 말한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할락 바 션'은 '갔다'가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나는 홍수 동안에 진흙 침전층이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앉아 굴곡과 비틀림이 생겼고 그다음에 침식이 표면을 깎아낸 후 그 위에 더 많은 층이 쌓였다고 믿

는다. 그래서 지질학에서 '부정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로 가장 잘 설명된다.

성경은 방주가 일곱째 달에 머물렀다고 말한다(창 8:4). 노아는 열세 번째 달까지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 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땅은 여전히 진흙탕이었다. 그리고 물이 여전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직 배 밖으로 나가기에 안전하지 못했다. 성경은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한다(창 8:5).

또한 호빈드는 만년설이 점차적으로 녹아서 천천히 바다의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홍수 후 처음 200~300년 동안은 온 세계로 흩어질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을 가지고 했던 그 200~300년 동안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있는 곳에 갇히게 되었다.

만년설이 다시 녹을 때 우리가 지금 명백히 보고 있는 특징들을 남겼다. 빙하기는 진짜 존재했고, 홍수로 가장 잘 설명된다.

그리고 땅이 나뉘어졌던 벨렉의 시대가 있었다. 벨렉은 홍수 후 백 년 뒤에 태어났다. 벨렉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4가지 이론이 있다. 벨렉은 '나뉘다'라는 뜻인데, ▲첫째는 언어와 국가가 바벨탑에서 나뉘었다. ▲둘째는 대륙이 움직였다. ▲셋째는 얼음이 녹은 물이 올라와서 대륙을 나누었다. ▲넷째는 땅이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져서 땅을 조사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구가 증가할 때 결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

얼음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감에 따라 바다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차가워졌을 것이다. 차가운 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고 그것이 온실효과의 보호의 일부를 사라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



▲ 노아의 방주. 출처: 창조과학선교회

명이 짧아졌다.

영국해협이 가장 깊은 곳이 150 피트(46m)밖에 안된다. 어떤 곳은 꽤 깊고 어떤 곳은 별로 깊지 않다. 나는 홍수가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바다가 채워지면서 지중해로 넘쳐흘렀을 것이다. 물이 넘쳐흐르면서 지브롤터 해협이 쓸려가서 지중해를 도로 채웠을 것이고, 그것이 꼭 차서 다시 시실리로 넘쳐 흘렀을 것이다. 이것이 수중도시가 발견되는 이유다. 수중都市는 꽤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흑해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의 문명 전체를 버려야 했다. 수중도시가 흑해 150피트(46m) 아래의 물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들이 그 밑에 도시를 지었던 게 아니다.

오늘날 지구는 여전히 그 홍수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기 위해서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자. 그것은 노아의 홍수의 결과물이다. 빛을 내는 전기도 석탄에서 힘을 얻었다. 홍수 전 세상의 에덴동산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들의 일부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홍수를 보여주는 지구의 모든 증거들을 비꼬아 '진화'를 보여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홍수의 증거를 통해 당신이 구원받을 것을 원하신다. <끝> [GNPNEWS]

● 4면에 이어 Interview

한국교회, 군선교에 관심 갖기 위해

서 그 교회에 나오는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놓고 기도하면서, 군 생활이나 신앙생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제대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병사가 복음을 받고 전역해서 한국교회의 신도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군교회는 800여 개이고 그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교회 장로들이 400여 명인데 대부분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가 참여할 수 있는 장로들이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로가 아니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한국장로회총연합회에 소속된 5만 명의 장로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분들도 모두 군생활을 해봤고, 또 자녀들이 군복무 중인 분들도 있을테니까 군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례 받은 병사가 전역한 후에 주거지 가까운 민간교회로 출석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가 있겠죠.”

- 그렇군요. 이렇게 하려면 한국교회와의 연합이 불가피하겠네요.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을 거저 받은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은 복음 빈곤국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걸음이 곤고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에 관심을 갖는 거라 생각해요. 민간 교회에 다니던 청년 또는 민간 교회가 전도해야 할 청년이 군대에 가 있다 생각하고 군교회를 민간교회의 일부로 생각해야 됩니다. 민간교회가 청년 선교를 위해 들어야 할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군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작은 군교회에 투입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렇게 뿌린 씨가 묘목이 돼서 한국교회로 파송되고, 이들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고 자기들이 거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말씀해주세요.

“한국교회가 군교회로 관심을 돌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명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선교가 좋은 전략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앞서 말한대로 선교의 형태를 바꿔서 MZ 세대 군인



▲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제공: 윤우 장로

들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얼마든지 군선교가 가능하고 세계 선교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군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MSO(Mission Support Organization)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를 돕는 기관인데, 150개 이상의 국가에 조직된 기독교인회와 교류하면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공산권 국가에 기독교인회가 설립되는 것을 돕고 이분들과 연합해 군대와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초청도 하는데, 참석자들이 뜨거운 열기에 큰 감동과 도

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가장 청결하고 뜨거운 열정을 지닌 나라를 찾아 복음의 등불을 맡기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복음의 등불이 서쪽으로 그리스, 로마, 영국을 경유해 지금은 미국에 와 있지만 이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옮겨지고 있고, 머지않아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북한과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북음적으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로써 예수님이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복음의 능력

죄를 버리고 주께 나아오라

주 예수님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다. 제발, 이제 고집을 꺾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보라, 주 예수께서 감옥 문을 활짝 여셨다. 이제 주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 당신에게 찾아와 감옥에서 나오라고 간청하신다. 당신이 죽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긍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라.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자여, 교만이나 분노나 욕망이나 탐욕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여! 당신을 고치시는 의사에게 나아오라. 당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라. 보라,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여기 계신다(마 4:23-24). 고민하는 자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그분이 당신의 대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당신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보호해주시며, 공의(公義)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진노가 당신을 삼켜 버리기 전에 죄를 버리고 주께 나아오라.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5)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내게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내 삶이 복음에 실제로 부딪혔다면 주변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응하게 된다. 나에게만 특별한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전부가 뒤집힐 만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에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다가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만난 장사꾼 비유를 하셨다. 가치를 안다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면 다 팔아다가 ‘그것’을 산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다 그물에 비유하셨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해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고 주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훗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우리 심령 깊이 주의 말씀이, 그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킨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백성이며 영토는 우리 심령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

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예수님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영토인 우리 심령에 임하면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며 옛 자아에 종노릇시키던 심령에서 악한 자가 쫓겨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



일러스트=이예원

리를 해방시킨다. 슬픔과 저주, 비극과 아픔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성령의 다스림, 의와 화평과 희락이 우리 심령을 차지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에클레시아’다.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견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이다.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믿어지면 완전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겉모양은 예수쟁이이고 직분도 받았는데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거나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필요

한 건 복음을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심령을 옥토같이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그 안에 임하여 그 삶을 바꿔주시길 구하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아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BOOK JAKIN

TOUR BOAZ

복음도서

선교여행

문의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최신간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율드려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음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변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정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아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신간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아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아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전도학교 통해 주님께 접붙임 된 존재임을 깨닫다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 개강 소식을 듣게 됐다. 전도에 대해 늘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복음과 전도’는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다. 학교를 시작하고 2, 3주쯤 되었을 때 일하다가 발목을 다쳤다. 2주면 낫다고 했는데, 4월, 5월, 6월이 되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이 되고 마음껏 다니던 시절이 그리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전도는 커녕 내 한 몸 운신하기도 힘든 크리스천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낫는 건데요? 다시 잘 걷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땀 마음의 각오가 좀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 지난주, 조별 나눔을 하는 시간에 조원 한 분이 바쁜 농촌의 일상을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



일러스트=고은선

금이 농촌에서는 작물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해요.” 굉장한 울림이 되는 말이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하셨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생생한 음성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나는 청력이 나쁜 노인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늘 애를 써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바탕 복음을 전하고 나오지만 늘 마음 한 켠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심령에 대한 책임감과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렇게나마 복음을 전했다는 약간의 성취감을 가진 나를 보는 괴로움, 그리고 이렇게 툭 던지듯 짧고 빈약한 내용으로 전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책감, 때때로 낯을 너무 가려 복음에 대해 입도 못 떴는 연약함이 늘 어려웠다.

그런데 학교가 진행될수록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짐작하게 된다. 주님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고취시켜 전도의 용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도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

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아 열매 맺는 존재임을 다시 인정하게 하셨다. 나의 말의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했다. 결국 내 말로 정리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이 복음을 더 알아야 제대로 살까? 배워도 끝이 없고, 알았다 싶다가도 여전히 모르고 비슷한 것 같은데 주님과 정반대편에서 있는 나를 볼 때는 눈물이 난다. 그러나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해주신다. 스스로는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이 죽었던 존재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한다.

[GNPNEWS]

오현아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Q+A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심한 욕설로 출가한 저를 막 대하시니 아버지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A 인간관계, 특히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참으로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부모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부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세상적 이론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굴복시키는 것으로써 “이래야 존경하고 저래야 상대하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는 아버지를 뜯어고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 나는 죽고 새 생명, 예수생명을 얻게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생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놀랍게도 욕설하시는 아버지가 귀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의 시체를 확인하고 생명이 예수생명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GNPNEWS]



WHO “탈북민, 새 정착지서 영양 결핍 시달려… 백신 접종률도 낮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과 그 자녀들이 새 정착지에서 식량 불안정이나 영양 결핍 경향이 있으며, 새 정착지에서도 금전적 결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양 공

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체중 변화에 관한 연구의 두 차례 서로 다른 검사에서 몸무게가 더 줄어든 탈북민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비타민 B2 및 칼슘 섭취 부족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민 자녀들의 백신 및 면역력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자녀들은 보건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져 독감이나 결핵, 간염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VPD)

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민 부모에게 태어난 어린이들이 중국 본토 주민 또는 다른 이주민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탈북민을 비롯한 난민일수록 각 나라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

가 낮다며, 각국에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GNPNEWS]



▲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통일부

북한의 성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지방 대도시를 오가며 노동당 간부와 안전요원, 검찰 등 주요기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성매매 조직 30명이 검거됐다. 데일리NK의 7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 안전부는 수년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와 관련자를 체포했다. A씨 일당은 평안남도

평성,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함흥, 평안북도 신의주 등 5개 역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안전부는 2019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함흥과 평성 지역에서 7000여 건, 사리원과 원산에서 6000여 건을 알선한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를 확보하여 지난 3년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취한 30여만

달러와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2만 달러 등 거액의 외화를 압수했다. A씨 일당이 대상으로 삼은 성매매수자들은 전국 각지의 노동당, 안전, 보위, 검찰 등 주요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 간부들과 돈주들의 가정집, 또는 아지트로 불리는 곳으로 여성들을 보내 며칠씩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한다. 20대 여성은 100~200달러, 고급중학교를 막 졸업한 만 17~18세

여성들은 300~500달러를 알선 비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평양시가 걸으로는 화려하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도 내부를 파헤쳐 보면 썩을 대로 썩었다.”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평양시는 정말 돈 없이는 한 걸음 움직이기 힘든 도시라서 수입이 적은 여성들이 쉽게 유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GNPNEWS]

北, 노동당 간부·검찰 등 고위간부 대상 성매매 조직 30명 검거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의 〈안데스의 심장〉

탐심과 염려를 덮는 믿음



▲ 그림설명: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 〈안데스의 심장〉, 1859년, 유화, 168x302.9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소장

미국의 낭만주의 풍경화가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Frederick Edwin Church)는 1859년 뉴욕에서 그의 대표작 〈안데스의 심장〉을 발표하였다. 이 한 작품으로 인해 처치는 명성뿐 아니라, 당시로는 거액인 1

만 달러에 작품을 판매하여, 생존 작가 중 최고가를 갱신하였다. 그의 작품은 제목 그대로 안데스 풍경을 그린 것인데, 1800년대 초에 있었던 훔볼트의 남아메리카 탐험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것이다. 왼쪽에

눈 덮인 산은 침보라조 산으로, 훔볼트 대장은 1802년 이 산의 정상에 올랐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졌다. 그림 앞쪽에는 각종 식물이 종류별로 그려졌고, 왼쪽에는 처치의 트레이드마크인

흰 나무둥치와 그 위에 그려진 작가의 서명을 볼 수 있다. 거대한 크기임에도 식물도감처럼 하나하나 세필로 그려진 꽃과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림 찬양이다. 가운데 폭포의 의미는 아마존의 시작

이며, 물이 고인 근처 십자가 앞에 선 두 명의 원주민은 남아메리카에 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한 감격을 뜻한다. 이처럼 처치는 아메리카 대륙의 장엄한 풍경을 그림으로써, 신앙을 찾아 떠난 식민지의 녹록지 않은 생활과 복잡한 외교, 정치 문제를 견디고자 했다. 그러고 보면,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자연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장엄한 대자연처럼 우리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은 너무나 웅장하고 위대하여, 떠올리기만 해도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마저 티끌처럼 작아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주도권 다툼이나, 걱정거리에서 치여 겨우 사는 존재가 아닌, 아버지의 전능과 지혜를 누리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는 성장을 기대하신다.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가치를 잊은 채, 얼마나 작은 일에 연연하고 분을 내며 사는지. 〈안데스의 심장〉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은혜의 제습기

2주 전, 수요일 예배를 앞두고 한 성도님이 교회에 있던 제습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성능이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물어오셨다. 얼마 전 등록하신 분이냐 가정심방을 했을 때 집이 좀 눅눅하다 싶어 제습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터라 적당한 걸 찾아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습기 가격이 만만치 않음을 발견하고 구매링크를 보내드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동안 기도제목으로 삼고 재정으로 주시든 현물로 주시든 제습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길 기도했다. 때마침 주일 말씀의 적용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 시간을 사모한다.’는 것이었기에 설교문에 야심차게 ‘제습기 현물’이라고 적어놓았다. 꼭 기도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쉽게도 주일예배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적용하는 말씀도 다른 예화로 채워졌다. 사실 아쉬워할 것도 없는 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으니 나 혼자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었다. 그러면서 어

느새 이 제습기를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져서 잔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지난 주간 있던 외부사역에서 주신 사례를 흘려보낼까 하는 마음도 문득 들어 여차하면 그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아직 사역이 진행 중인데 사역 다 마치고 팀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할 것 같다 하여 다시 중심을 잡고 이 마음도 접어두었다.

그러던 중 지난주 화요일,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는 집사님이신데 2년만의 연락이었다. 너무 반가워서 몇 십분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통화했다. 안부를 묻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한 후 집사님께서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전하셨다. “목사님! 제습기 교회로 보냈습니다!”

필요하나 묻지도 않으시고 이미 보냈다는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하신 말씀에 ‘우리 교회에 제습기 있는데…’ 하는 말을 차마 전하지 못한 상황에 집사님은 급히 일을 봐야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다.



출처: Anders Mellerup on Unsplash

전화를 끊고도 ‘교회에 제습기 있는데 어떻게 하지?’라며 한동안 내가 한 기도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 기도제목…!”

전화를 끊고 앉은 자리에서 마음이 흥분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너무도 절묘하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정하신 때에 보내신 것이다. 나중에 받은 제습기 택배 박스에는 보낸 사람이 집사님 이름이 아닌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말하자면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배송된 셈이다. 주님께서 어찌나 정확히 일하시는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셨다.

제습기를 어깨에 얹고 성도님의 집까지 걸어가는데 이걸 옮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몇 번을 걸음을 멈추고 감사를 고백했다. 문득 말씀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사진과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다. 아내는 우리 집에 제습기를 산 것 마냥 기뻐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 2:9)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

지난주 이 은혜를 나누는데 나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그 성도님도 울었다.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고 있음을 그 시간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느꼈다. 결국 제습기를 통해 교회를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김동진 목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7. 4 ~ 7. 25 (가나다 순)

개인 강종재 고려진 권순호 김경선 김광희 김다경 김동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혜신 박성규 박신희 변정숙 신혜경 안수경 윤미자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이주선 이희순 장근혜 정금자 정영배 정요한 조명숙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목 홍교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주소망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헤브론원형학교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